

最近 初婚年齡의 變化에 관한 小考

曹 大熙 (韓國人口保健研究院 責任研究員)
高 甲錫 (韓國人口保健研究院 研究調整室長)

目	次
I. 머릿말	III. 初婚年齡의 變動趨勢
II. 平均結婚年齡의 最近趨勢	IV. 要約 및 將來의 展望

I. 머릿말

初婚年齡의 變化는 人口學的으로 婚姻適齡 人口의 性比에 影響을 받고, 出産力 나아가서 人口의 增減에 影響을 미친다. 한편 初婚年齡은 다른 어떤 人口要素보다 그 社會의 文化 및 價値에 따라 크게 左右될 뿐 아니라 社會·經濟的 變動에 依해 影響을 받기도 한다. 初婚年齡의 變化는 必然的으로 結婚樣狀 (marriage pattern) 全体에 變化를 일으키며 그 影響이 生活樣式 (way of life) 이나 社會制度에 波及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經濟的으로 勞動力 需給에 影響을 미칠 수도 있고 特定 商品 需品の 需要決定의 한 要因으로 作用하기도 한다. 이와같은 重要性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資料와 分析技法의 制約 때문에 初婚年齡에 관한 研究는 흔하지 않으며 人口學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婚姻力에 관한 研究는 주로 出産力과의 關係에 관심의 초점을 맞춰 왔다. 우리나라에서 初婚年齡과 出産力 혹은 出生率과의 關係에 주목하고 최초로 이 問題를 다룬 글은 金演 (1965) 의 것이다.¹⁾ 그는 安定人口 理論에 바탕을 둔 일종의 標準化技法을 이용하여 1950 - 60 年 間에 初

1) Kim Y., "Age at Marriage and the Fertility in Korea", World Population Conference, 1965, Vol. II, Belgrade 1965, New York, 1967.

婚年齡이 上昇하지 않았다면 出産力이 얼마나 더 높아졌을 것인가를 提示하였다. 趙利濟(1978)의 1960~70年 間 出生率 變動의 分析은 또 다른 標準化技法을 使用하여 初婚年齡의 上昇이 人口成長率 鈍化에 크게 作用하여 온 것을 究明한 것이다.¹⁾ 이 밖에 標本調査 資料의 分析을 통해 初婚年齡과 出産力 間의 關係를 檢證하고 初婚年齡의 決定要因을 찾아내고자 하는 몇몇 試圖가 있었다.^{2) 3)} 이들과는 별도로 韓國의 人口와 그 變化를 다룬 大部分의 文獻에서도 初婚年齡 自体와 그 變化에 對한 記述을 찾아볼 수 있다. 本稿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나 人口動態申告 資料와 世界出産力 調査 結果를 아울러 提示코자 한다.

II . 平均結婚年齡의 最近 趨勢

좁은 意味의 平均結婚年齡은 平均初婚年齡과 區分되어야 한다. 平均結婚年齡의 계산에는 再婚이 包含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離婚과 再婚이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있어서도 그 數가 많지 않은 社會에서는 平均結婚年齡이 平均初婚年齡보다 약간 微細하게 높을 뿐이다. 一定年度의 平均結婚年齡은 그 해에 結婚한 사람들의 當時의 年齡을 合算하고 結婚數로 나누면 간단히 얻을 수 있고, 平均初婚年齡도 같은 方法으로 쉽게 얻을 수 있지만, 動態申告資料가 不完全한 우리나라에서는 正確한 것을 구할 수 없다. 더구나 經濟企劃院의 資料*는 再婚과 初婚을 區分하여 年齡別 結婚數를 提示하여주지 않고 있어서, 平均初婚年齡은 年齡別 未婚比를 利用하여 推定하거나 標本調査 結

-
- 1) Cho, L.J., R.D.Retherford, "Comparative Analysis of Recent Fertility Trends in East Asia,"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Liege, 1973
 - 2) Kim, Mo - Im, et.al., "Changing Age at Marriage and the Influence of Social, Demographic, and Attitudinal Variables", Population and Family in the Republic of Korea, KIFP, 1974
"Age at Marriage, Family Planning Practice and Other Variables as Correlates of Fertility,"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in the Republic of Korea, KIFP, 1974
 - 3) 李興卓, 初婚年齡과 出産力의 相關關係에 관한 研究, 家族計劃研究院, 1977
- * 經濟企劃院, 人口動態申告現況 1980, 1982

뜻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結婚申告에 關한 것은 1970年以後의 것이다. 表 1 은 遲延申告된 結婚까지 합하여 年度別로 結婚申告者의 年齡分布를 整理한 것이다. 이 중에는 再婚이 包含되어 있고, 遲延申告時 實際 結婚時期보다 먼저 結婚한 것으로 申告했을 可能性보다는 늦게 結婚한 것으로 잘못 申告했을 可能性이 클 것이므로 平均結婚年齡보다 높을 것이 틀림없다. 이 表에서 結婚率이 가장 높은 主年齡層 (prime age group) 의 年度別 變化를 보면 男子의 경우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女子의 경우는 起伏이 심한 것은 우리나라의 結婚市場에서 女子가 從屬的이고 不利한 立場에 서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그것이 marriage squeeze 라고 말할 수 없을런지는 모르나 그간 우리나라의 結婚市場에 需要供給上 상당한 不均衡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平均結婚年齡의 變化趨勢를 알아보기 쉽도록 그려본 圖 1을 보면 平均結婚年齡이 男·女 마찬가지로 上昇하고 있지만, 女子가 男子보다 빨리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結婚年齡上 男女差가 점점 좁아져 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이 傾向이 전 기간에 걸쳐 一律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年度別 起伏이 작은 安定된 指標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平均結婚年齡의 推移를 자세히 살펴보면 男子가 떨어질 때는 女子도 떨어지거나 最小限 그 上昇速度가 동시에 바뀌고 있는 興味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11年이라는 긴 期間에 걸쳐 平均結婚年齡上의 男女差가 꾸준히 좁아진 것을 볼 때, 이것이 構造와 性比의 急激한 變化때문에 一時的으로 야기되는 marriage squeeze 의 한 징후로 보기 힘들다. 만약 再結婚率이 높아지면, 통상적으로 再婚年齡은 初婚年齡보다 높으므로 全体 平均結婚年齡이 높아진다. 즉 지금까지의 平均結婚年齡上昇이 再婚率의 增加에 起因하였을 可能性이 있다. 이와같은 可能性을 따지기 위해 같은 기간중 전체 結婚數에 대한 再婚數의 比率이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表 2를 보면 1975年까지 男女모두 再婚의 比重이 점점커졌지만 다시 서서히 떨어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初婚年齡과 結婚年齡이 함께 높아져 왔다고 斷定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再婚者의 再婚年齡이 점점 높아져 왔을 가능성과 再婚은 初婚보다 지연신고가 많아서 最近에 일어난 再婚이 아직 申告되지 않았을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기 때문이다.

Table 1. Age distribution of registered marriage 1970-1980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Registration	195,135	239,457	244,777	258,607	258,030	279,141	280,507	296,165	327,811	329,044	333,695
Male											
15-19	3.02	3.01	3.48	3.11	3.18	2.70	2.54	1.95	1.69	1.07	0.44
20-24	25.04	25.69	25.47	24.95	23.73	24.19	25.53	23.94	22.03	21.33	17.24
25-29	51.55	51.72	52.76	52.89	54.21	54.09	53.77	54.70	54.42	56.44	60.71
30-34	14.59	14.56	13.85	13.55	13.21	12.80	12.37	13.71	15.99	15.77	16.17
35-39	2.54	2.43	2.52	2.62	2.78	2.90	2.83	2.91	3.02	2.78	2.71
40-44	1.24	1.01	1.11	1.13	1.11	1.20	1.17	1.13	1.19	1.06	1.07
45-49	0.86	0.70	0.68	0.68	0.68	0.73	0.67	0.61	0.60	0.57	0.62
50 +	1.15	0.89	1.01	1.07	1.09	1.32	1.12	1.04	1.07	0.99	1.04
Mean	27.01	26.89	26.87	26.90	26.95	27.10	27.01	27.13	27.34	27.39	27.69
Female											
15-19	22.34	22.48	22.77	21.67	21.55	19.80	18.53	15.29	12.69	9.81	5.49
20-24	59.79	60.48	55.43	55.60	55.30	56.30	58.50	59.90	59.02	60.78	59.42
25-29	13.56	13.39	16.97	17.65	17.94	18.27	17.75	19.56	22.72	24.22	29.68
30-34	1.97	1.77	2.73	2.93	2.92	2.94	2.79	2.91	3.05	2.88	2.99
35-39	1.11	0.99	1.07	1.09	1.13	1.27	1.18	1.20	1.25	1.12	1.08
40-44	0.63	0.48	0.53	0.54	0.60	0.67	0.60	0.59	0.59	0.55	0.51
45-49	0.35	0.25	0.28	0.27	0.30	0.39	0.33	0.32	0.36	0.31	0.26
50 +	0.26	0.17	0.21	0.25	0.27	0.36	0.33	0.28	0.33	0.33	0.37
Mean	22.15	22.11	22.37	22.46	22.58	22.74	22.75	22.99	23.36	23.54	23.99

Source : EPB, Vital statistics from Registration 1980, 1982. * Unknown age excluded

Figure 1. Trends of Mean Age at Marriage from Regi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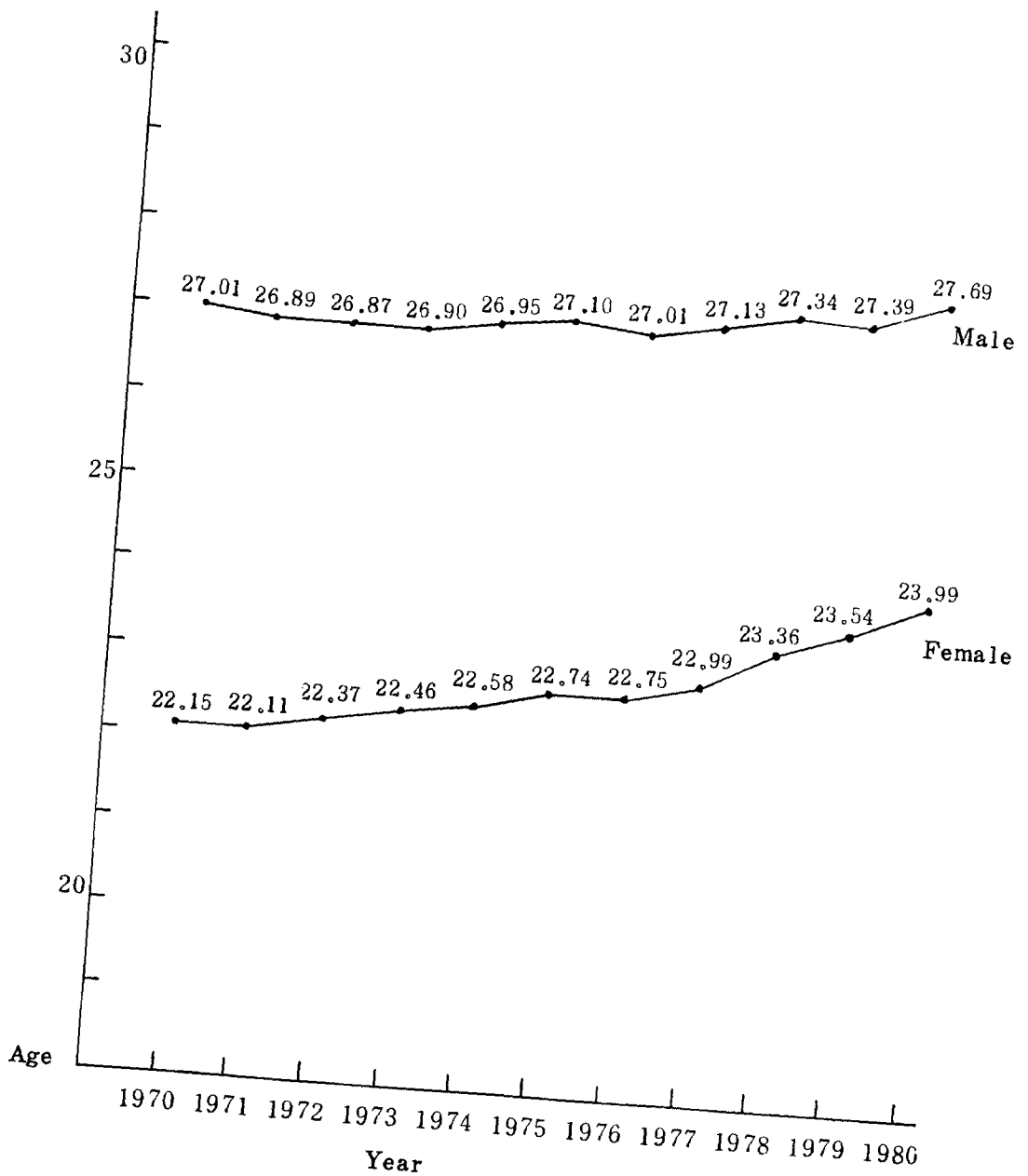


Table 2. Proportions of Remarriage to All Reistered Marriage, 1970-1980

Year	Total Marriage Registration	Registered Remarriage		Proportion of Remarriage	
		Male	Female	Male	Female
1970	195,137	11,070	1,326	3.75	0.45
1971	239,457	9,136	1,043	3.82	0.44
1972	244,780	13,246	7,077	5.53	2.89
1973	258,605	14,772	7,928	5.71	3.07
1974	258,049	15,112	8,131	5.86	3.15
1975	279,146	17,514	9,798	6.27	3.51
1976	280,513	16,561	9,344	5.90	3.33
1977	296,165	16,883	9,786	5.70	3.30
1978	327,811	18,504	10,710	5.64	3.27
1979	329,044	17,111	9,716	5.20	2.95
1980	335,695	17,266	9,890	5.14	2.95

Source : EPB, Vital Registration 1980, 1982

Ⅲ. 初婚年齡의 變動趨勢

앞서 指摘한 것처럼 經濟企劃院 發表 資料에는 婚姻種類別(初婚 - 再婚別) 婚姻年齡別 製表가 되어있지 않았고 또 우리나라에서 婚姻申告는 本籍地 中心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地域別 分類는 無意味하다. 센서스 報告書에 있는 年齡別 未婚比를 使用하여 初婚年齡을 推定하는 方法을 Hajnal¹⁾이 개발하였는데 그 計算方法의 簡便性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初婚年齡에 關한 文獻에 자주 나타나 있다. 이 方法에서는 한 cohort의 未婚比가 一定 時點에 나타난 각 年齡層의 未婚比와 같이 감소된다는 것을 假定하고 있는데 이 假定은 現實的으로 問題가 있다. 즉 한 時點의 特定年齡의 未婚比는 그 時點의 年齡構造에 크게 左右되고 이것이 平均初婚年齡의 計算에 影響을 주기 때문이다. 이같은 弱點을 어느 정도 제거하기 위해서 考案된 것이 Agarwala²⁾의 方式이다. 이 方式에서는 두 時點 間 同一 出生 cohorts의 未婚比上差異를 反映하여 하나의 未婚比減少表(Single decrement schedule)를 組成한 후 Hajnal의 公式에 따라 初婚年齡을 計算한다. 이 두가지 方式에 따라 計算된 初婚年齡(Singalate Mean Age at marriage : SMAM)을 센서스 別로 提示하면 表. 3과 같다. 우선 Hajnal의 SMAM을 보면, (1) 初婚年齡이 점점 높아졌지만 그 速度가 점점 느려지는 傾向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남자의 婚年齡은 最近(1975 - 80)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 男·女 間 差는 1970年까지 別다른 變化를 보여주지 않다가 이후에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3) 都市 - 農村 間 差異는 男子보다 女子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4) 이 差異는 最近에 이를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男子에 있어서는 그 差가 거의 사라져 버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都市 男子의 初婚年齡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都市地域에서 初婚年齡 自体가 높아지지 않는데다가 初婚年齡이 낮은 農村地域이 市部로 吸收, 編入되었기 때문이 것 같다. Agarwala의 SmAm에는 두 時點 間 變化가 反映된다고는 하나 Hajnal의 SMAM이 Hajnal의 SMAM에서 밝힐 수 없는 傾向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1) Hajnal, J., "Age at Marriage and Proportion Marrying", Populatin Studies, Vol 7, 1953.

2) Agarwala, S.N., Age at Marriage in India, Allahubaul, 1962.

Table 3. Change of Singulate Mean Age at Marriage- Hajnal's and Agarwala's

SMAM	1960	1965	1970	1975	1980
<u>Male</u>					
Whole country	26.46	26.75	27.30	27.46	27.38
Urban	27.33	27.75	27.62	27.70	27.40
Rural	25.94	26.16	26.99	27.46	27.36
<u>Femal</u>					
Whole country	22.59	22.90	23.31	23.65	24.11
Urban	23.81	24.11	23.93	24.20	24.42
Rural	22.04	22.08	22.63	22.84	23.50
ASMAM	1960-65	1965-70	1970-75	1975-80	
<u>Male</u>					
Whole country	26.83	27.51	27.51	27.44	
Urban	27.77	27.59	27.74	27.40	
Rural	26.21	27.28	27.20	27.51	
<u>Female</u>					
Urban	22.94	23.45	23.76	24.28	
Whole country	24.17	23.91	24.30	24.52	
Rural	22.08	22.77	22.90	2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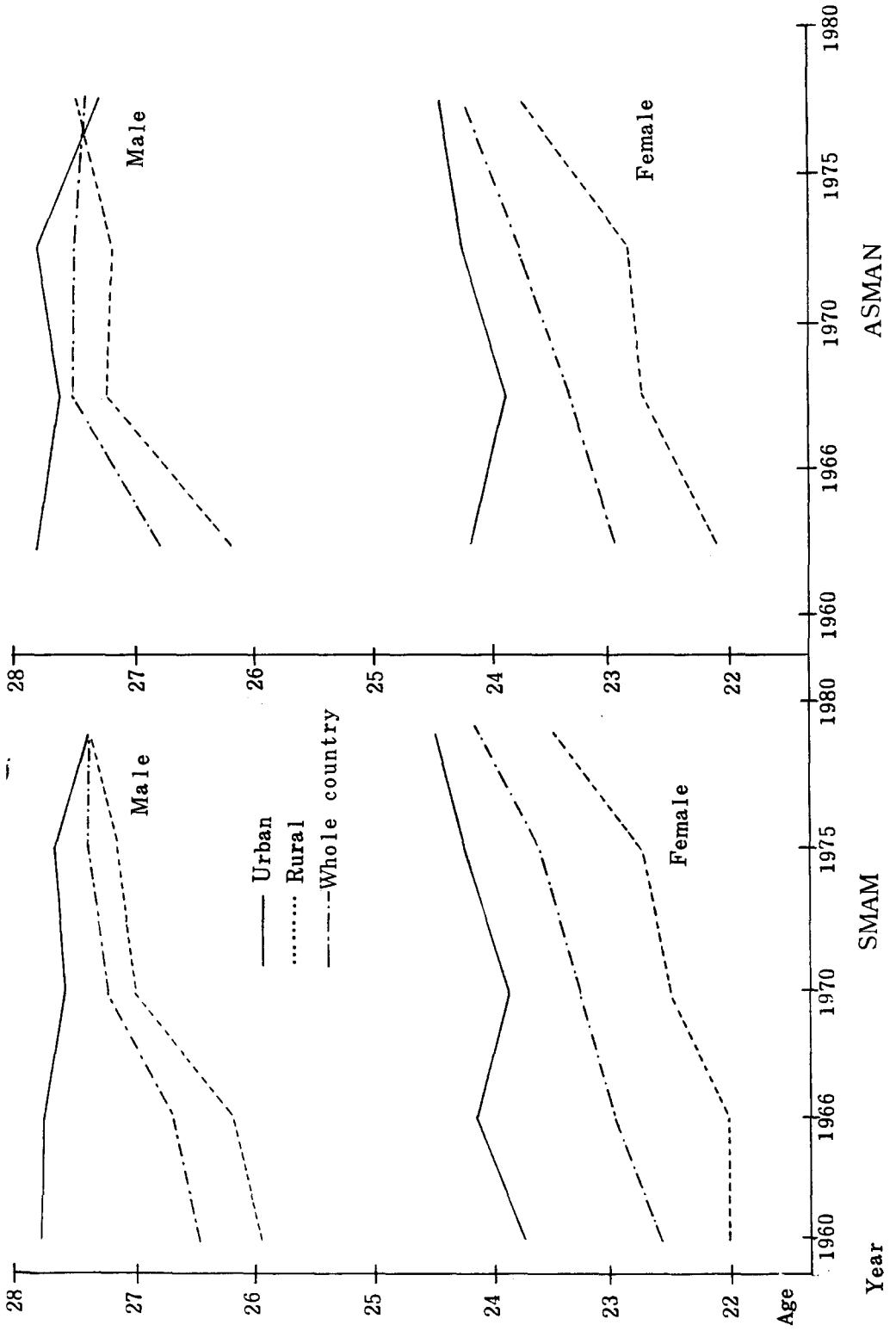
Source : EPB, Population and Household Census Report, Vol.1, 1960, 1966, 1970, 1975, 1980

Table 4. Change of Mean Age at Marriage by Marriage Cohort

	N	Marriage in						
		before 1945	1945-49	1950-54	1955-59	1960-64	1965-69	1970-74
Total	5430	15.81	16.78	18.41	19.62	20.83	21.54	22.17
<u>Residence</u>								
Urban	2843	16.20	17.14	18.91	20.10	21.35	21.92	22.64
Rural	2587	15.58	16.54	17.98	19.24	20.29	20.87	21.39
<u>Education</u>								
None	1140	15.49	16.44	17.44	19.05	20.05	20.30	22.14
Primary	2730	16.23	16.86	18.42	19.49	20.60	21.01	21.31
Secondary	1421	17.72	18.07	19.71	20.66	21.62	22.22	22.73
Tertiary	139	*	*	*	22.63	23.64	24.42	24.75
Less than 5 cases								

Source : EPB, KIPH, Korean National Fertility Survey/World Fertility Survey, 1974.

Figure 2. Trends of Singulate Age at Marriage



標本調査에서 變動趨勢을 살피는 것이 적합치 않는 것이 사실이나, 質問內容의 여하에 따라서는 變動趨勢의 검토도 불가능하지 않은 않다. 표본 조사에서 얻어지는 결과는 추정치에 불과하고 오류의 위험이 있다는 고유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센서스나 신고를 통해서는 알수없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1974년에 實施된 世界出産力 調査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전국규모의 어떤 조사보다도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이 조사에는 初婚年度와 當時年齡을 묻는 質問項目이 包含되어 있고 이 初婚年齡을 居住地域, 出生地域, 成長地域, 教育水準 別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료의 또 한가지 약점은 15歲 以上 49歲 이하의 기혼부인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年代別 平均初婚年齡의 變化를 보면, 平均值 自体는 센서스 및 申告資料에서 보다 約 1歲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時系列的 變動 傾向은 同一하게 나타나고 있다. 都市-農村別 差異를 보면 最近에 이를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센서스 자료의 분석에서 일관되어 나타난 경향과는 상반되는 현상이다. 이 두 가지 결과 중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를 현재 주어진 자료의 분석으로서는 판정할 수 없다. 두가지 자료가 각각 誤謬의 素地가 있기 때문이다. 資料의 代表性이라는 點에서는 全數調査인 센서스와 申告資料를 擇할 수 밖에 없지만 測定의 妥當性이라는 點에서는 世界出産力調査의 結果가 앞설 것이다. 그러나 出産力調査에서나 센서스에서는 結婚이 일어나기 직전의 居住地地를 묻지 않고 다만 現在의 居住地地를 記入토록 하였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이 두 자료만 가지고 都市-農村 間 差異에 대하여 알가알 부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初婚年齡과 教育水準 間의 關係는 自명한 것으로서 誤明의 여지가 없다. 다만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初婚年齡上의 差가 修學期間의 差만큼 크지않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상은 結婚年齡의 上昇을 유도하는 요인 중 教育水準의 向上이 차지하는 比重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間接的으로 말해주고 있다. 즉 學校는 빨리 마쳤을지라도 文化的으로 規範지워진 혹은 許容되는 나이에 이를 때까지 결혼을 미루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教育期間이 結婚年齡에 미치는 영향이 教育水準이 높아진다. 無學과 初等教育, 初等教育과 中等教育, 中等教育과 高等教育的 順序로 初婚年齡의 差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教育水準과 初婚年齡과의 관계는 就業機會의 폭이 얼마만큼 넓은가, 女性의 社會活動에 對한 態度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등의 여러가지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IV. 要約 및 將來의 展望

이상 세 가지 資料를 分析한 結果, 最近 우리나라 結婚年齡의 變化 中 서로 一致하는 점이 있는가 하면 서로 상반되는 점도 발견되었다. 모든 결과를 綜合해 볼 때, 韓國人의 初婚年齡은 차츰 높아져 왔지만 男·女 모두 그 上昇速度가 줄어들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特히 男子의 경우 初婚年齡이 더 이상의 增加를 기대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한 듯 하다. 女子의 경우도 初婚年齡이 머지않아 停滯水準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都市의 初婚年齡이 農村의 初婚年齡보다 높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農村地域에 전통적인 가치가 潛在하여 있고 教育機會가 比較的 덜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最近에 이르러 都市地域 男子의 初婚年齡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男子의 初婚年齡이 이미 上限에 이른 것을 말해주고 있다. 都市化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므로 이 점은 더욱 확실하다. 女子의 初婚年齡이 男子의 初婚年齡보다 빨리 상승하기 때문에 자연 男女差가 좁아져 왔다. 夫婦의 結婚年齡이 각각 독립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理想的인 年齡差가 있어서 상호 의존적으로 정하여 지는 것이기 때문에 初婚年齡의 男女差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것이 만약 一時的인 현상이 아니라면 家族生活에 큰 變化가 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男子의 경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都市·農村 間 差異의 감소 및 소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언젠가는 男子나 女子를 막론하고 初婚年齡上 都市·農村 差는 사라지게 될 것인바, 農村에서 傳統的 慣行 내지는 價値가 유지된다는 식의 都市·農村 區分은 無意味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即 家族生活의 樣式이라는 점에서 점점 同質的으로 되어간다고 하겠다.